



말씀

“기다림 그리고 준비”

오늘은 대림 제2주일로써 대림시기 첫 번째 시기 중 한가운데 해당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하느님의 참된 가족으로, 그분처럼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기다린다면 자신의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만나서 해야 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큰 선물을 주시고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며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마련하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세상의 번잡한 일들로 괴롭고 힘든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또 살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함께 나눌 때,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놀고 젓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한다고 전하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하느님의 나라로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높은 산처럼 우뚝 솟아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절망은 깊은 골짜기처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높고 깊은 시련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지낸다면, 당신 스스로를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서 드러내 주시고 당신처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 눈앞에 당신을 드러내셨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빵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즉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빵이 되신 하느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분명 이런 준비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

송재원(인드레이) 신부
상요셉(의무사) 상당 주일



제 1 독 시

이사 11,1-10

회답송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제 2 독 시

로마 15,4-9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마태 3,1-12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이양등 베드로



성인명: 이양등 베드로 (李陽登 Peter)
 신분: 회장, 성인, 순교자
 활동연도: ?-1868년

이양등(李陽登) 베드로(Petrus)는 경상도 울산의 죽령 교우촌(현, 경남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회장이었다. 본디 성품이 선량하였던 그는 꿀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였다.

이 베드로는, 1866년의 병인박해를 피해 죽령 교우촌으로 이주해 온 허인백 야고보와 김종륜 루카를 만나 서로 권면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때까지도 이곳은 비교적 안전하였다. 그러나 2년 뒤인 1868년에 포졸들이 마침내 죽령 교우촌을 찾아내게 되었고, 이 베드로는 얼마 되지 않아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경주로 압송되어 가는 동안 이 베드로는 동료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 순교를 결심하였다. 실제로 그는 경주 진영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증언하였다.

이어 이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울산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당하고 신앙을 한결같이 증언하였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다음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 현 경남 울산시 중구 남외동)로 끌려나가 김종륜 루카, 허인백 야고보와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8년 9월 14일(음력 7월 28일)이었다. 순교 당시에 이양등 베드로는 십자 성호를 긋고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하며, 그의 시신은 형장까지 따라온 허인백 야고보의 아내 박조예에 의해 거두어져 비밀리에 안장되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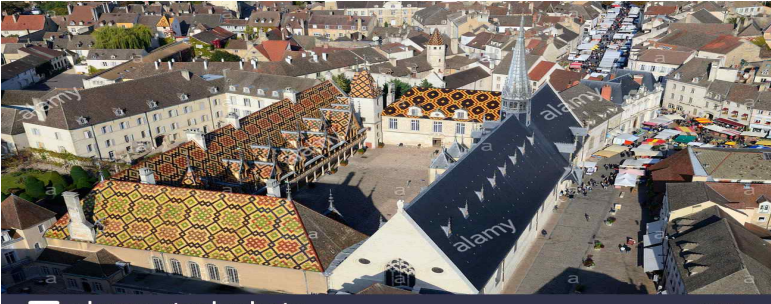
마음



공공 감추고	여리고 여린
살아가는	큰 사랑이 있음을,
나의 마음 안에,	좋은 마음이 자리하고
싸늘하게 식어 버린	있음을.
그 냉랭한 마음 안에,	알아차렸으면 합니다.
손만 대도 터질 것 같은	
그 불같은 마음 안에.	그것을 나누며
	살았으면 합니다.

상화이야기

본 병원 박물관



alamy stock photo
'신의 호텔 Hotel-Dieu' 본 호스피스, Beaune, 1443년부터 건축, 1452년 운영시작 중양의 4각형, 디제로우 티일로 장식된 기둥이 병원기둥이다.



병원 내부모습: 빈자를 침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제단화와 진정회기 제작되어 있다. 침상의 벽과 진정에 작은 구멍들이 뚫어져 있어, 빈자들이 병상에서도 제단화를 볼 수 있었다.



이 당시 병원을 묘사한 필사본에 보면, 한 침상에 두 명의 환자들이 누워있는데(죽어가는 여인은 한 명만 누워있다), 이는 한 침상에 6명에서 15명까지 함께 간호하던 그 당시의 풍습에 비하면 굉장한 호사였다. 특히 이 병원에서는 물리적 치료와 함께 정신적·영성적 호스피스를 더욱 강조하였다.

롤랭은 병원 내에서 가장 거동이 힘든 중증환자들의 30여 개 침상에서,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주경당이 위치하도록 설계하고 이를 바이텐에게 부탁하였다. 특히 제단화를 이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신경 썼다. 따라서 제단화는 특히 죽어가는 이들에게 신에게 가까이 가도록 권고하며, 위안과 또 경고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주제로 제작되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스넷)

교 구 소 식

군중주회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2주일: 문무대 정비오 신부

◆ 교구장 동정

- 하늘을 나는 이들의 주보성인이신 Italy Loreto 성모님 대희년 개막식 참석
때·곳: 12월 6일(금)~10일(화), Italy Loreto
- 토마회 송년미사
때·곳: 12월 13일(금) 19: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국장회의

때·곳: 12월 10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잇숨 성가대 창립 20주년 기념 및 상탄축하 음악회

때·곳: 12월 14일(토) 19: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국군장병이 있는 곳이라면 전후방 어디라도 찾아가는 잇숨 성가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상탄축하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주문의 : 흥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밧자취를 따라” - “예수님께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